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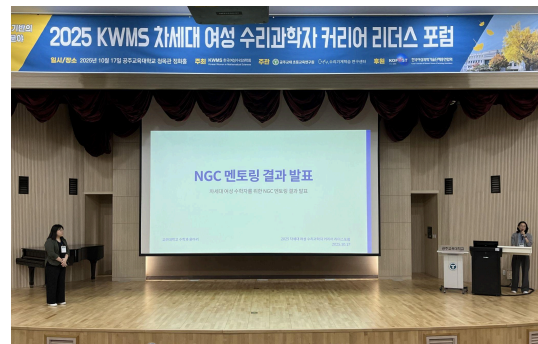
# NGC 멘토링 결과 발표 : 차세대 여성 수학자를 위한 NGC 멘토링 결과 발표

윤마리 (고려대학교 수학과)

글 | KWMS 4기 학생기자 김가연  
rkdus9327@naver.com

2025 차세대 여성 수리과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에서 지난 7월 1일 KWMS 국제학술대회 중 진행된 Next Generation Community of KWMS(이하 NGC) 프로그램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NGC는 여성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자들의 학문적 성장과 진로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올해 새롭게 마련된 자리였다. 세 명의 교수(멘토)와 열 명의 대학원생과 학부생(멘티)이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프로그램 결과 발표는 고려대학교 수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재학 중인 윤마리 멘티가 맡았다.



## ■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작된 첫 만남

NGC는 참가자들의 간단한 자기소개로 문을 열었다. 각자의 전공과 연구 분야를 소개하며, 어떤 계기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의 연결과 소속감을 얻고, 진로와 연구 과정에서 생기는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얻고자 프로그램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대학원 생활 중 주변에 교류하는 수학자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가 많아 아쉬움을 느껴, 서로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NGC 프로그램은 이러한 기대에 맞춰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멘토 교수들이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 짧지만 깊었던 대화의 시간

NGC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대화는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논문 주제 선정과 좋은 질문을 던지는 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멘토 교수께서는 질문하는 과정 자체가 성장의 출발점이고, 완벽한 질문을 찾기보다 다양한 질문을 시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정년 이후 연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멘토께서는 국내에서는 개인 연구소



▲ 지난 7월 1일 KWMS 국제학술대회 NGC 현장 사진

설립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많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정년이 길거나 없는 경우도 있어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국내에서도 제도적 변화가 이뤄진다면 정년 이후 연구의 가능성이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도 함께 전했다.

세 번째로, 결혼과 출산 시기, 그리고 경력 단절의 문제가 다뤄졌다. 한 교수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출산과 육아 시기에는 개인 연구가 쉽지 않았지만, 공동 연구나 주변의 도움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완전히 자유로운 시기는 없지만, 오히려 아이가 새로운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며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경험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졸업을 앞둔 대학원생들에게는 연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지금의 시간을 소중히 활용하고, 학문적 네트워크를 넓혀 자신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전해졌다.

### ■ 교류를 통해 생긴 새로운 힘

끝으로 프로그램의 성과와 소감이 공유되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처음 만나는 사이였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며 관심 있는 연구 주제를 나누는 등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결과 발표를 맡은 윤마리 멘티는 “연구가 잘 풀리지 않아 힘들었던 시기에 교수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연구자로서의 방향을 다시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NGC 프로그램은 국제학술대회 일정상 점심시간을 활용해야 했던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도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KWMS는 내년에 더 다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이번 결과를 통해 여성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했다.